

해외에서 중공의 박해를 폭로한 청화대학교수 수인

나는 나의 학생을 사랑하고 나의 친인들을 사랑한다. 나는 나를 키워 준 조국과 정든 학교, 학생들을 떠나기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시범을 보여주기 위해 진짜말을 하기 위해 중공의 박해를 폭로하기 위해 중공에게 미혹된 민중들을 위해 나는 내가 열애하는 모든 것을 저버리고 중국을 떠나 내가 진실을 말 할수 있는 곳에 가서 마음속 말을 함으로써 전세계 인민들로 하여금 중공의 철 막(鐵幕)뒤에 감춘 진상을 보게 하련다.

---청화대학교수 수인(須寅)

■수인과 그의
안해, 딸



2008 년 8 월 27 일, 청화대학 토목공정계 부 교수 수인은 중공의 봉쇄에서 벗어나 미국 시카코에 왔다. 해외기자들이 채방할때 그는 자신이 파룬궁수련으로 인하여 불법적으로 로동교양 2 년판결을 받고 박해를 받은 사실을 폭로했다.

수인교수는 1995 년에 청화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오늘까지 13 년동안 교편을 잡았다. 교육사업에 몰두해온 그는 신경쇠약에 걸려 잠을 잘수 없었다. 1995 년에 그는 다행히 “전법륜”책을 얻게 되어 하루만에 이 책을 다 읽고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즉시에 잠이 들었다. 그때로부터 그의 실면증상이 사라졌다. 그는 파룬궁을 수련하면서 “쩐싼런(眞善忍)”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도덕수양과 사업효률을 높였다. 그리하여 여러차례 청화대학토목계 선진사업자로 당선되었고 여러번 국가급교수와 과학연구성과상을 탔다.

1997 년 7 월, 중공이 파룬궁을 탄압한후 본교 610 사무실에서는 매일 수인교수에게 중공의 선전을 이야기했고 늘 회의에 참가시켜 감시했다. 그는 아무런 동요도 없이 여전히 수업과 과학연구

에 열중했다. “610”은 그를 불러놓고 《당신은 수업과 과학연구만 명심하고 있는데 파룬궁으로 인해 퇴직당해도 두렵지 않는가!》하고 협박했다.

2006 년 3 월 13 일 아침, 해정공안분국의 20 여명 경찰들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수인교수집에 뛰어들어 수색했다. 전법륜책을 들춰낸 경찰들은 그와 안해를 체포했다. 그리하여 수인교수는 2 년로동교양판결을 받고 단하로교소에서 모진 박해를 받았다. 그는 8 개월동안 “작은 감방”에 갇혀 외계와 격리되었고 높이 3cm 되는 낮은 쪽걸상에 앉아 온하루 벽만 쳐다보아야 했다.

2008 년 3 월 13 일, 수인교수는 석방된후 청화대학 “610”들은 그를 찾아와 《착오를 승인하고 련공을 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써라. 쓰지 않으면 교수사업체계를 취소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리하여 그는 부득불 사랑하는 교단을 떠나 미국으로 오게 되어 진정 자유를 얻게 되었다.

지금 청화대학에 40 여명 파룬궁학원들이 “쩐싼런”을 신앙한 리유로 불법적으로 랍치되어 적어 몇년 많아 십여년 판결을 받고 감옥에서 모진 박해를 받고 있다.

“쩐싼런”원칙은 세상에 널리 전할 가치가 있다



캐나다국회 참의원 드·니노는 지난 9 월 20 일 토론토에서 신문 예술단의 공연을 본후 《파룬궁을 신앙 하는 “쩐싼런”원칙은 세상에 널리 전할 가치가 있다. 만일 이런 신앙 자유가 없다면 생명은 완전하지 못하며 사람마다 “쩐싼런”을 믿는다면 우리의 세상은 더욱 아름다워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인도에서 파룬궁경문을 교과서에 편찬

인도 방케를 지역의 학교에서는 금년 8 월에 “전법륜”론어를 영문교과서 첫페이지에 넣었다. 위 사진은 한 학교의 교장과 선생님들이 파룬궁을 련공하고 있는 장면이고 앞줄에 흰옷 입은 분이 교장 루이드이다.



벼락맞은 모택동 초상화

지난 9 월하순, 산동성 류작시에 가을비가 온 종일 구질구질 내렸다. 황혼이 깃들 무렵, 가슴을 답답하게 내리누르던 먹장구름이 머리위에 빙빙 돌면서 이따금 작은 우뢰가 울더니 갑자기 칼날 같은 번개가 절반 하늘을 쪼개며 잇따라 “우르릉 팡” 하고 천지를 진감했다. 길손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저마다 머리를 들고 바라보니 길목에 세워 놓은 모택동초상화가 벼락에 맞아 박살났다. 굵은 비는 쉬임없이 내리고 길손들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청도에 핀 우담바라꽃



금년 10 월 3 일 오전, 청도아침신문사 기자가 성양대북곡서촌의 한 기업공사 2 층 사무실동쪽 창문유리에 핀 우담바라꽃 47 송이를 보았다. (왼쪽사진)눈송이 같이 흰 우담바라꽃은 직경이 1mm 이고 열은 흰색 줄기는 유리에 직접

연결되어 있었다.

2005 년에 한국의 여러 절당에 우담바라꽃이 나타난 후 근년에 세계 각지에서 더욱 많이 발견되었다. 분 완전한 통계에 의하면 금년 7 월부터 오늘까지 석달동안만 하더라도 중국의 호남, 중경과 말레이시아, 캐나다, 일본, 미국 등 나라에서 우담바라꽃이 나타났다.

불경(佛经)의 기재에 의하면 우담바라꽃은 3 천년에 한번씩 피어나는데 파룬성왕이 인간세상에 내려와 정법(正法)함을 의미한다고 했다. 파룬궁은 중국의 9 여년의 모진 박해속에서 80 여개 나라에 전파되어 1 억이 넘는 사람들이 수련하고 있으며 그들은 착한 마음으로 파룬궁진상을 이야기하며 세인들이 하루 속히 각성할 것을 바라고 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저마다 심사숙고해야 할 바이다.

순결하고 아름다운 “꼬마 런꽃”

지난 9 월 14 일, 필라델피아 명예학교 무용대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 거행한 “제 7 차미한중문화일”의 초청을 받고 공연한 런꽃무용대와 요고대의 “파룬따파가 좋다”는 무용은 관중들의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다.



퇴당한 “마레주의”교수

나의 아버지는 수십년동안 마레주의철학을 배워준 로교수이다. “6.4”학생애국운동때에 대학생이었던 나는 중공의 사악한 면모를 아버지에게 말하면 아버지는 대뜸 《공산당이 없으면 새중국 이 없고 나의 오늘이 있을수 없다. 공산당의 주류는 좋다.》고 반박했다. 우리 부자간은 이 문제를 놓고 늘 변론했으며 때론 얼굴까지 붉히곤 했다.

나는 2005 년설을 집에 돌아와서 쇠게 되었다. 공산당에 대한 말이 나오게 되자 아버지께서는 웬일인지 뜻밖에도 “네가 옳았고 내가 수십 년동안 얼떨떨했다. 나는 지금 당비를 바치지 않고 조직생활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 후회되는 것은 교단에서서 무수한 착한 학생들을 기편하는 것이다.”라고 감격해 말했다.



2004 년에 아버지가 퇴직한후 그의 평생소원이었던 마르크스의 고향 독일에 가게 되었다. 아버지께서는 독일에 가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료해했다. 특히 독일이 하나로 통일된후 경제, 문화,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되고 마레주의가 독일에서 소실된후 진정한 자유와 민주, 문명이 발양된 사실을 직접 목격했으며 “진정한 경서”를 가지고 귀국했던 것이다.

나는 “9 평공산당”책을 아버지께 드리며 읽어보라고 권했더니 아버지께서는 이 책을 언녕 여러번 감명깊게 읽어보았다고 말씀했다. 나를 더욱 기쁘게 한것은 모택동을 신처럼 모시던 아버지는 몇몇 퇴직한 로교수들과 함께 모택동의 범한 죄악들을 꺼림없이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만화 퇴당하여 독혹을 없애자.

